

**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
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**

(120-012)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
Tel. 02-393-9085 Fax. 02-363-9085 E-mail. corights@jinbo.net

문서번호 : 04-0625-1

발 신 :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

수 신 : 각 언론사 사회부

제 목 : 파병반대를 위한 병역거부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

1. 안녕하십니까.
2. 온 나라를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김선일 씨의 납치, 사망 소식 이후 파병반대를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
3. 하지만 또한 복수를 위해, 또는 국익을 위해 파병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
4. 저희 병역거부자들은 평화주의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동시대 젊은이로서 이러한 정부와 사회 일각의 반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.
5. 이에 취재를 요청드립니다.

일시 : 2004년 6월 25일 오후 3시

장소 : 국회 앞

순서 : 추도사 / 홍세화 (전쟁없는세상 후원회장, 한겨레신문 기획위원)

편지낭독 - 자이툰의 벼들에게 / 이용석 (전쟁없는세상)

발언 1 - 이라크 재건을 원한다면 군인대신 민간평화봉사단을 보내라

/ 염창근 (병역거부자, 이라크 평화네트워크)

발언 2 - 분노의 대상은 이라크가 아니다 / 나동혁 (병역거부자)

기자회견문 낭독 / 임성환 (병역거부자, 아웃사이더 대표)

붙임: 기자회견문

담당: 이용석 (전쟁없는세상 016-854-0851)

나동혁 (병역거부자 011-9110-4686)

이라크 재건을 원한다면 군인대신 평화봉사단을 보내라

과병에 반대한다. 또한 이미 과병된 사회, 제마부대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한다. 더 이상 추악한 전쟁에 동참해선 안 된다.

석유와 세계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보내는 행위는 한국을 전범국으로 만드는 길이며 한국시민을 전범국의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. 또한 이 야만적 횡포에 분노하는 대다수 아랍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선택이다. 수차례의 침략에 괴로워 한 역사를 지닌 우리가 왜 침략에 동참하여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려는 것인가.

우리는 이미 짧은 벚 하나를 슬픔 속에 보냈다. 과병은 더 많은 벚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며 한국인으로 태어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나 자신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드는 길이다.

과병이 국익이며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이들에게 고한다.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무엇인가? 고통 속에 죽어간 이조차 부당하고 추악하다 말했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수란 말인가. 이는 결국 광의의 폭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또 다른 무고한 희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.

우리가 무자비한 테러에 슬퍼하는 동안에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테러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. 팔루자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에서 죽고 희생당했던 수 천 수만의 피부색 다른 세계이웃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.

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군인이 아닌 평화봉사단을 보내야한다.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한국의 많은 평화주의자들은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. 그 일이 비록 위험하고 희생이 따르는 일일지라도. 평화주의자인 우리 병역거부자들 역시 이에 기꺼이 동참 할 것을 밝힌다. 폭력은 폭력을 테러는 테러를 낳을 뿐이다. 폭력의 법칙이 아닌 평화의 법칙을 실천할 때이다.

2004. 6. 25

전쟁없는세상